

양궁 여자단체 10연패·전 종목 싹쓸이 목표

올림픽 통산 금메달 27개 수확한 최고 효자 종목 중국·인도 등 약진... 까다로운 유럽 날씨 변수

양궁은 역대 올림픽에서 한국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온 종목이다. 1972년 뮌헨 대회부터 나온 45개의 양궁 금메달 중 절반이 넘는 27개를 한국이 가져왔다.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를 목에 건 것을 비롯해 2000년 시드니 올림픽, 2004년 아테네 올림픽,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씩을 따냈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는 남녀 개인·단체 4개 금메달을 독식하며 사상 첫 '전 종목 석권'이라는 위업을 달성했다.

2020 도쿄 올림픽에서도 한국은 처음 도입된 혼성 단체전 금메달을

포함해 4개의 금메달을 쓸어 담으며 '최강'의 지위를 재확인했다. 한국 선수단이 험난한 메달 레이스를 펼칠 거로 보이는 이번 대회에서도 양궁만큼은 '효자 종목'의 역할을 다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받는다.

대한체육회가 양궁에서 최소 3개의 금메달을 따낼 것으로 기대하는 가운데, 대표팀은 늘 그랬듯이 남녀 개인전, 남녀 단체전, 혼성전 등 5개 종목에서 금메달을 '싹쓸이'해내는 걸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대표팀과 대한양궁협회 내부에서는 어느 때보다 힘겨운 승부가 예상된다는 반응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한국 양궁은 전통적으로 유럽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곤 했다.

불규칙적으로 부는 바람과 잦은 비가 승부에 의외성을 증대시켜 태극궁사들과 다른 강자들 간의 실력 차를 좁히는 결과를 낳곤 했다.

전통의 강호 미국이 사상 처음으로 단체전 출전권을 따내지 못한 가운데 중국, 대만, 인도 등이 한국과 더불어 전 종목 출전권을 따낼 만급 아시아 국가들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점도 변수다.

10년 넘게 남자 양궁 최강자로 군림해온 김우진(청주시청)과 도쿄 올림픽에서 2관왕에 오른 김제덕(예천군청), 항저우 아시안게임 2관왕 이우석(코오롱)이 남자 대표팀을 구성한다.

리우와 도쿄에서 거듭 단체전 금

메달을 따냈으나 개인전에서는 한 번도 올림픽 메달을 따내지 못한 김우진이 이번 대회 개인전 금메달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지 주목된다.

여자 대표팀에서는 항저우에서 37년 만의 양궁 3관왕에 오른 임시현(한국체대)을 필두로 남수현(순천시청), 전현영(인천시청)이 올림픽 사수에 선다. 1988년 서울 대회부터 여자 단체전 우승을 한 번도 놓치지 않은 여자 대표팀은 이 종목 10연패에 도전한다.

양궁 경기가 열리는 장소는 파리의 옛 군사시설인 앵발리르다.

개막식 전날인 25일 예선 라운드를 치르고, 28일 여자 단체전, 29일 남자 단체전, 7월 2일 혼성전, 3일 여자 개인전, 4일 남자 개인전 결승이 각각 열린다.

태권도 송진우, 전국무대 헤비급 '금'

경희대총장기 전국고교대회

남녕고등학교 태권도부 송진우가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강원도 철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36회 경희대학교 총장기 전국 남·여 고등학교 태권도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1일 남녕고등학교에 따르면 경희대학교와 대한태권도협회가 주최하고 경희대학교 체육대학이 주관한 이번 대회에서 남고등부 헤비급 3학년 송진우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송진우는 준결승에서 마산구암고 강구태 선수와 접전 끝에 2대 1



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전에서 송진우는 강원체육고 이승준 선수를 2대 0으로 제압해 금메달을 획득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제주Utd 광주 원정경기서 또 출전

K리그1 20라운드 광주FC에 1-2 패배... 8위로 추락

3연패에서 탈출했던 제주유나이티드가 광주 원정에서 후반 막판 결승골을 내주며 연승에 실패했다.

제주는 지난달 30일 오후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하안은행 K리그1 2024 20라운드 광주FC와의 경기에서 1-2로 패했다.

승점을 가져오지 못한 제주는 7승2무11패 승점 23점을 유지하며 이날 승리로 승점 3점을 가져간 광주에게 7위 자리를 내주고 8위로 한계단 내려 앉았다.

제주는 지난 7번 광주 신창무에게 선제골을 내준 후 반격에 나서 전반 22분 강력한 압박으로 진성욱

이 공을 빼앗은 후 이탈로-임창우의 패스를 받아 안태현이 득점으로 연결하며 1-1을 만들었다.

하지만 후반에서 연패 탈출을 노리던 광주의 강력한 반격에 후반 44분 가브리엘이 골을 만들어내며 1-2로 경기를 내주고 말았다. 제주는 이날 볼 점유율에서 38%대 62%로 밀렸고 슈팅은 8대13, 코너키 4대9로 주도권을 잡지 못한 경기를 펼쳤다.

jeju는 오는 6일 서울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21라운드, 10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전북과 22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김하성 2루타로 9경기 연속 안타 행진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시즌 10번째 2루타로 9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다.

김하성은 1일(한국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펜웨이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MLB) 보스턴 레드삭스와 방문 경기에 7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1안타 1타점을 올렸다.

김하성은 지난달 22일 밀워키 브루어스전 이래 9경기 연속 안타를 생산하고 있다. 시즌 타율은 0.228

(289타수 66안타)로 소폭 올랐다.

김하성은 0-4로 끌려가는 7회 1사 2루에서 오른손 불펜 저스틴 슬레이튼의 가운데 물린 5구째 컷 패스트볼을 놓치지 않았다.

김하성이 강하게 잡아당긴 타구는 3루수 왼쪽을 꿰뚫었고 파울 라인을 타고 외야펜스까지 굴러갔다. 2루 주자는 넉넉히 홈을 밟았다.

김하성의 시즌 10번째 2루타로써 지난달 23일 시즌 10호 홈런 이후 8일 만에 나온 장타다.

잉글랜드, 슬로바키아에 기적의 역전승

벨링엄 95분 극장 동점골, 케인 연장 역전골

잉글랜드가 슬로바키아를 연장 접전 끝에 물리치고 2024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4) 8강에 진출했다.

잉글랜드는 1일(이하 한국시간) 독일 쾰른의 아레나 아우프 샬케에서 열린 대회 16강전에서 후반 추가시간 주드 벨링엄의 극적인 동점골로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간 뒤 연장 전반 해리 케인의 역전골이 터지면서 슬로바키아에 2-1로 겨우 이겼다.

첫 우승에 도전하는 잉글랜드는 오는 7일 오전 1시 '다크호스' 스위스와 준결승 진출을 다툰다.

잉글랜드는 전반 25분 만에 기선을 제압당했다.

슬로바키아의 이반 슈란츠가 다비드 스트렐레츠의 절묘한 침투 패스를 골대 오른쪽에서 오른발로 마무리해 선제골을 뽑았다.

잉글랜드는 동점골 사냥에 나섰다. 좀처럼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

이번 대회에서 세련되지 못한 공격 전개로 자국 팬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아잉글랜드는 이날도 후반 45분까지 단 한 개의 유효 슈팅도 기록하지 못하며 부진했다.

주심이 6분의 추가시간을 준 가운데, 벨링엄이 경기 종료 1분여를 남겨둔 후반 50분에 환상적인 오버헤드킥으로 천금 같은 동점골을 뽑아냈다.

오른쪽에서 넘어온 스로인을 마크 구에히가 머리로 연결해 문전으로 띄우자 벨링엄이 재빠르게 오버헤드킥을 시도해 골망을 흔들었다.

기사회생한 잉글랜드는 연장 전반 1분 만에 해리 케인의 헤더 결승골로 역전 드라마를 완성했다.

잉글랜드는 이날 2개의 유효슈팅을 기록했다. 득점으로 연결된 벨링엄, 케인의 슈팅 외에는 골문 안으로 향한 슈팅이 없었다.

스페인 '화력쇼'를 펼치며 조지아를 4-1로 대파하고 8강에 진출했다. 스페인은 전날 덴마크를 2-0으로 물리치고 올라온 독일과 오는 6일 오전 1시 맞대결을 펼친다.



1일(한국시간) 잉글랜드와 슬로바키아의 유로 2024 16강전에서 잉글랜드의 주드 벨링엄이 후반 50분 오버헤드킥으로 동점골을 터뜨리고 있다. 승기를 잡은 잉글랜드는 연장 전반 1분 스트라이커 해리 케인이 헤더 역전골을 터뜨려 극적인 8강 진출에 성공했다.

취 임



이 상 봉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의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애월읍 납읍리

이 장 김보성 노인회장 진형수
부녀회장 강서운 청년회장 진영삼
납읍리민 일동

취 임



진 명 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애월읍 납읍리

이 장 김보성 노인회장 진형수
부녀회장 강서운 청년회장 진영삼
납읍리민 일동